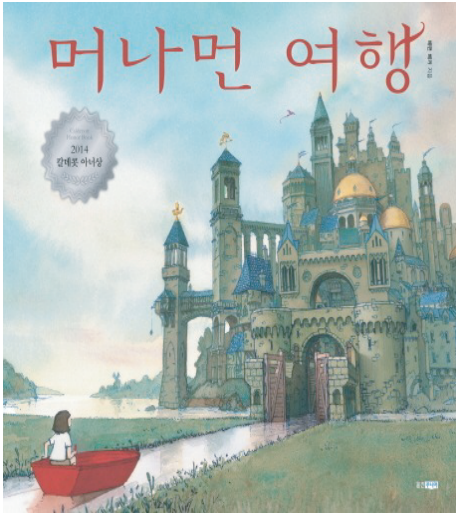


문학상을 수상한 동화책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머나먼 여행」이며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이다. 외롭고 심심했던 한 소녀가 자신의 방 한구석에서 마법의 펜을 발견하였고 소녀는 마법의 펜으로 문을 그려 상상의 세계로 떠나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 책이 다른 그림책과 다른 점은, 글이 없는 그림책이라는 것이다. 아이들은 글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그림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아낼 수 있다. 섬세하고 정교한 그림은 아이들의 관찰력을 더욱 증폭시켜 그림책에 집중하게 만든다. 좀처럼 강조되지 않는 이 책의 주인공 모습은 어떤 독자든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 감정 이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한시도 쉬지 않고 여행하는 주인공과 스토리텔링에 맞춘 구도, 끝없이 펼쳐지는 환상적인 배경이 유아들의 창의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에런 베커는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첫 그림책 「머나먼 여행」으로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으며 이 책을 통해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되어 활동 중이다.

<4-1> 칼데콧 아너상 수상작 「머나먼 여행」

칼데콧 상 수상작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로 이 책은 칼데콧 상 수상작이다. 이 책은 커다란 물고기의 모자를 훔쳐 달아나는 작은 물고기의 이야기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 물고기 혼자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한다. 작은 물고기는 하늘색 모자를 훔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커다란 물고기를 우습게 보는 자만심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작은 물고기의 말과는 반대로 커다란 물고기는 모든 것을 재빨리 알아차리고 작은 물고기의 뒤를 쫓는다. 이 책은 계속 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여 작은 물고기의 생각과 커다란 물고기의 행동이 절묘하게 어긋나는 독특한 재미를 안겨 준다. 이 책은 화려하지 않고 절제된 그림으로 유아들이 이야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열린 결말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존 클라센은 미국으로 건너가 애니메이션에 그림을 그리고 아트 디렉팅을 하다가 2010년부터 그림책 작업을 시작했다. 2011년 쓰고 그린 첫 그림책 「내 모자 어디 갔을까?」는 그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그림책 10'에 선정되었고, 여러 나라말로 번역, 출간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뒤이어 나온 그림책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로 2013 칼데콧 상을 받았으며 현재도 그림책을 그리며 활동 중이다.

<4-2> 칼데콧 상 수상작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만드는 사람들

담당교수 : 정혜인 교수님

학 생 : 고하은 김지수 신호정 유진솔

이나경 정다운 황예지 고지원

김경원 김유림 안소현 이지

정지원 홍다혜

